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황우진  
전화 031-5182-4290 / 팩스 031-5182-4555

**보 도 자 료**  
**2025. 3. 31.(월)**

## **치밀한 계획 끝에 경쟁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외국인 구속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경쟁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외국인을 오늘(3. 31.)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요지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해로 청과물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오인한 끝에 '25. 3. 7. 03:29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의 출입통로 앞에서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총 20회 이상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 검찰은 송치 후 핵심증거인 **현장 CCTV 영상의 화질개선과 분석**에 노력한 결과, '우발적 범행이고 처음에는 맨손으로 싸웠다'는 피고인 변명과 달리 **치밀한 계획**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등 뒤에서 갑자기 과도로 찔러 공격하는 등 **잔혹한 범행 과정** 일체를 확인하였습니다.
-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도주한 피고인의 동선을 추적·검거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CCTV 영상 확보를 경찰에 요청하여 피고인이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계획 범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경제적지원 등 **보호 조치**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 피고인 및 피해자

● 피고인 : A(남, 49세, 중국 국적)

● 피해자 : 亡 B(남, 65세)

※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원 팔달구에서 30~40m 거리를 두고 각 청과물 가게 운영

## 2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해로 청과물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오인한 끝에 '25. 3. 7. 03:29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의 출입통로 앞에서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총 20회 이상 찔러 살인

## 3

## 주요 수사 경과

● '25. 3. 7.                긴급체포

● '25. 3. 9.                구속영장 발부

● '25. 3. 13.              구속 송치

● '25. 3. 13.~30.    피고인 조사, CCTV 영상 화질개선, 법의학 전문가에 대한 부검감정서와 CCTV 영상 분석의뢰

## 4

## 수사 결과 및 의의

### ① CCTV 영상 분석으로 확인한 계획적 범행 전모

●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계획적 살인을 부인함

- 평소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청과물 가게에 대해 험담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와 대화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며 도발하여 우발적으로 흥기를 사용했다는 취지임

- 검찰은 송치 후 핵심증거인 현장 CCTV 영상의 화질 개선에 노력함
  - CCTV 영상 원본은 '빛 번짐' 현상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작에 대한 정확한 식별에 지장이 있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의뢰하여 화질을 최대한 개선하였음
- CCTV 영상에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 준비와 실행과정이 그대로 나타남
  -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아파트 출입통로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급습한 것임
  - 범행 당일 1차 공격 전에는 두 사람은 대면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알아 본 피해자가 욕설하며 도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짐
  - 등록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범행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헬멧을 착용한 채 공격하는 등 신원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였음
- CCTV 영상과 부검감정서에 대한 법의학 분석으로 범행 과정을 확인함
  - 피고인은 '처음에는 맨손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찔렀다'고 주장하였음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범행의 계획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실체관계임)
  - 검찰은 CCTV 영상 화질개선, 슬로우모션 분석에 이어 법의학 전문가에게 부검감정서와 CCTV 영상의 비교 검토를 의뢰하였음
  -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제압하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4회 이상 찌른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계속해서 공격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범행임이 드러남
  - 피해자는 주요 장기의 손상 없이 20여곳에 이르는 자상 부위 출혈만으로 사망할 만큼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였음

## 2 CCTV 영상은 범인 검거에도 결정적 기여

- 피고인은 범행 후 등록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음
-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그 동선을 추적하여 피고인을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하였음
-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출발하기 전에 주거지 앞에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모습의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경찰에 요청하였고, 해당 영상을 통해 계획적 범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음

## 5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 